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우리이웃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7월 7일(음력5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481호

서울시장 '망언'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불교계 · 우리당 · 네티즌 거센 항의
이 시장측 "해명 · 사과 계획없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사에서 '수도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내용의 봉헌서를 낭독하고 있다. 아래는 봉헌서 내용. 사진은 기독교TV촬영

이명박 서울시장이 최근 한 기독교 행사에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내용의 봉헌서를 낭독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월 2일 기독교TV(CTS)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5월 30~31일 이틀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청년 · 학생 연합기도회'에 참석,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한다"며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소망교회 장로인 이 시장은 '서울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연합'이 주최해 1만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서울시 공식 휘장이 새겨져 있는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장로 외 서울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 일동'이라고 적시된 봉헌서를 낭독해, 개인 자격이 아닌 서울특별시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연합'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과 후년에 이어 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07년에도 전국적인 규모로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기독교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비서실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현재(2일)까지 해명이나 사과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불교계와 네티즌들은 물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까지, 이 시장이 개인자격이 아닌 서울특별시장 자격으로 참석해 '봉헌' 운운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며 일제히 비난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2일 "서울시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과 행동"이라며 "인기를 좇는 정치인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2면으로 이어짐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

흐르는 역사 속에서 서울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하며,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200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장로 외
서울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서울 기독청년 일동

승가교육제도 개선 '시동'

조계종 승가교육개선추진위 발족 … 위원장 종범 스님

조계종이 승가교육제도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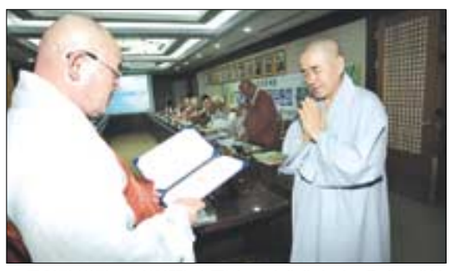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 · 이하 승개추)는 7월 1일 발족식을 갖고 위원장에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을 선출하고 제도개선분과 위원장에 지안 스님(승가대학원장), 법령개선분과 위원장에 영배 스님(종회 교육분과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교육관계 인사 19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단을 확정했다.

승개추는 승가교육 중 기초(행자)교육, 기본교육, 전문(특수)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안 마련과 법령개정, 시행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단 산하의 특별위원회다. 운영일정은 오는 8월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실무위원회의, 분과위 회의, 추진위회의, 워크숍, 공청회 등을 거쳐 2005년 6월 경 중앙종회에 종법개정안 제출을 끝으로 역할을 마치는 한시적 성격의 조직이다.

조계종은 지금까지 행자교육원의 실제 교육기간이 20일 남짓 밖에 되지 않아 기초교육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본교육제도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강원 교육을 마치고도 학위취득을 위해 동국대나 중앙승가대로 다시 진학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실제로 중앙승가대의 재학생 절반이 구족계 수지자로 기본교육기관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 타종교와 비교해 현행 기본교육 4년 만으로 스님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가 하는데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았다.

이날 발족식에서 법장 스님은 "이번 승개추 출범은 1994년 교육원 출범 이후 10년차를 맞는 현행 승가교육체계에 대한 종단 내부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도제 양성의 근간이 되는 승가교육체계 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2002년 법장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이후 '선교육 후득도'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승가교육제도 개선을 주요 종책 과제로 정하고 1년 이상 행자 생활과 4년 정규대학(중앙승가대), 2년 대학원(강원)과정 등 7년 이상의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왼쪽)이 종범 스님에게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 위원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청와대 앞 단식시위 지율 스님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6월 2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번 단식 농성의 목적은 천성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그 기간 동안의 공사 중단. 지율 스님은 "터널 진입로 공사가 90% 이상 끝나 곧 터널이 뚫릴 위기 상황"이라며 "자연 보존에 대한 의식이 바뀌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北 · 中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에

세계유산위, 인류 보편적 가치 인정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중국 쓰저우(蘇州)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6.28~7.7)는 7월 1일 북한과 중국이 각각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과 '고구려 수도, 귀족과 왕족의 무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이번에 등재 결정된 유적은 북한의 평양, 평안남도 남포 등 5개 지역 고분 63기와 벽화고분 16기와 중국에 있는 오녀산성, 국내성, 환도산성, 태왕릉과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등 고구려 초기 도읍터와 무덤 등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고구려 유적에 담긴 △인류의 탁월한 창조성 △동아시아 역사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가치 △벽화의 미적 우수성 △독특한 건축구조 △인간과 자연의 조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등재로 고구려 유적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음은 물론, 유적에 대한 접근이 한층 용이해져 국내외 고구려사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세계여성불자대회 성료
이라크 평화 결의문 채택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공동대회장 명성 · 쏘모)가 7월 2일 성료됐다.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이번대회에는 30개국 1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 이라크 전쟁의 평화적 해결에 참여 할 것 등을 결의하는 8개항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9 · 10면

조용수 기자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씨 취임

노무현 대통령은 6월 30일 새 문화관광부 장관에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54 · 사진)을 임명했다. 정 장관은 언론인 출신의 3선 의원으로 1950년 전남 화순 출생,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템플대 신문 대학원을 수료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할'

그림 · 조태호

덕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 無比스님(前법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동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品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의 특징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림.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구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농 협 053-02-109450 윤재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재승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E-mail : minjoksa@chollian.net